

코로나19에 빛 발하는 ICT 텔레워크 솔루션

“화상-재택근무 전혀 불편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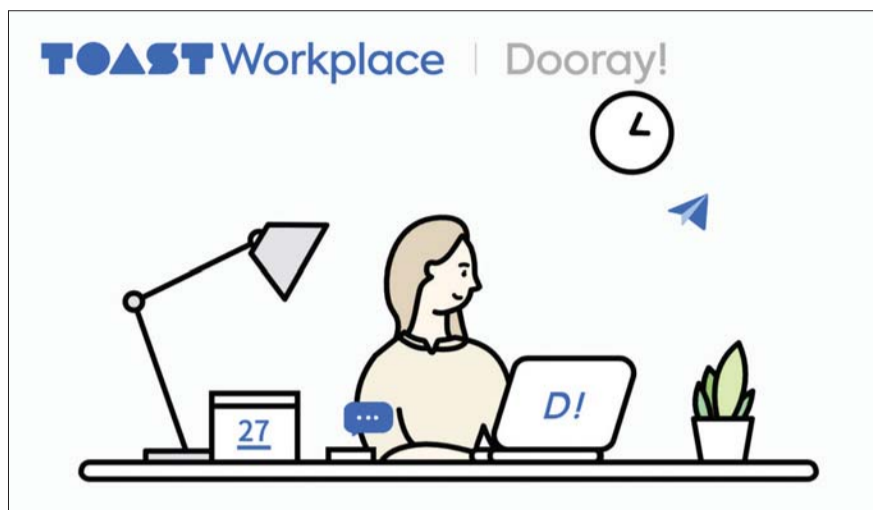
기존 업무도 메신저·클라우드 이용 실제 업무 활용으로 원격 문제파악 “향후 텔레워크 업무 가속화 될 것”

‘코로나19’ 확산에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나선 가운데 화상회의·클라우드 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이 빛을 발하고 있다.

2월 관련 업계에 따르면 ICT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전사적으로 재택근무를 결정한 SK텔레콤은 오는 8일까지, KT는 6일까지 전사 임직원 50% 순환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게임업계에선 엔씨소프트가 6일까지 전사 유급 특별 휴무를 결정했고 넥슨, 넷마블, NHN 등은 6일까지 재택근무를 연장키로 했다.

ICT 업계가 비대면 업무 시행에 들어가면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은 관련 솔루션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달 28일 자사 ‘T그룹통화’를 활용해 재택근무 연장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결정했다. 이날 T그룹통화 서비스에는 임원 99명이 연결돼 박 사장까지 총 100명이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했다. T그룹통화는 이전에도 타지역 영업점 직원 등과 미팅할 때 이용하던 것이지만, 전사적으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그룹통화는 이동통신 3사가 쓸 수 있으며, 한 번에 100명까지 연결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T그룹통화를 이용하는 발신량도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T그룹통화 발신량이 최근에 엄청나게 늘고 있다”며 “내



‘토스트 워크플레이스 두레이’ 이미지.

/NHN

부적으로도 이미 스마트오피스 등을 시행해 재택근무로 크게 불편한 점은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T그룹통화 이외에도 클라우드PC ‘마이데스크’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툴인 ‘팀즈’를 재택근무에 활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미 박정호 사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클라우드·모바일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구축을 통해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실시간 채팅, 문서 공동 편집, 영상 회의 등의 협업이 가능한 팀즈는 이미 지난해 전사로 확대했다.

KT의 ‘KT화상회의 2.0’ 시스템은 2009년 12월 구축됐으며, 2016년 고도화를 거쳤다. 지난해 기준, 연간 회의실 개설 건 수는 3만600건을 기록했고, 참석자 접속 횟수는 41만5200건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김소혜 연구원은 “그동안 비대면 산업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영역에서 유통이나 콘텐츠 산업 위주로 성장해왔지만 향후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유리해 기업 간 거래(B2B) 영역에서 산업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 및 IT 기업 NHN은 재택근무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사 클라우드 협업 플랫폼 ‘토스트 워크플레이스 두레이’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현대산업개발 및 HDC그룹 8개 계열사, 오크밸리, NS홈쇼핑, 인쿠르트 등 1000여개 기업이 활용 중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서도 5세대(5G) 상용화로 인해 원격 사무실이나 재택근무 등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텔레워크(Telework)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우한전세기 탑승, 헌신의 값진 씨앗”

조원태 회장 대한항공 51주년 기념사

어려운 순간 함께한 임직원에게 감사 코로나 여파로 별도 기념행사 없어

대한항공의 51주년을 맞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해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2일 대한항공 창립 51주년을 맞아 사내 게시판에 기념사를 등재하고 “우리가 직접 대한항공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먼저 조 회장은 창립후 51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대한항공이 영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조 회장은 “기업의 초석을 다진 창업주 회장님,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성장을 이끈 선대 회장님, 함께 헌신했던 수많은 선배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고객, 주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직원들에게 대한 헌사도 잊지 않았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의 오늘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임직원분들께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위치에서 의연하게 임무를 수행해주시는 여러분께 그 어떤 감사의 표현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이 대한항공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가장 소중한 좋은 씨앗이라고 믿는다”며 “국가의 부름에 자신의 안위조차 뒤로 하는 우한행 전세기에 자원해 탑승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또한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씨앗”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과정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에 담긴 가치있는 미래를 보며 사랑과 정성으로 가꾸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일조하기 위해 별도의 창립기념식 행사는 갖지 않았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삼성중공업, 셔틀탱커 3척 3611억 계약

올해 첫 수주... 2022년까지 인도

삼성중공업이 3611억원 규모의 셔틀탱커 3척 수주에 성공하며 올해 첫 수주를 기록했다.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와 수에즈막스급 셔틀탱커 3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지난 2월 28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2022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셔틀탱커는 해양플랜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해상에서 선적해 육상 저장기까지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선박이다. 높은 파도와 바람의 영향을 받는 해상에서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며 해

양플랜트 설비에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첨단 위치제어장치(DPS) 등 고부가가치 시스템이 탑재돼 가격이 비싸다.

삼성중공업은 1995년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셔틀탱커 건조를 시작했다.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45%(143척 중 64척)를 기록하는 등 최다 건조 경험과 높은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를 지난해 실적인 71억달러보다 18% 높여 84억달러로 설정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8K TV 사전구매하면 더 세리프가 덤”

16일까지 85형·75형 사전판매 쿠폰팩·100만원 혜택 등 ‘풍성’

삼성전자는 3일부터 16일까지 2020년형 QLED 8K TV 사전판매 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전 구매 가능 제품은 2020년형 QLED 8K 85형과 75형 2개 모델이다. 베젤을 최소화해 화면 99%를 활용하는 ‘인피니티 스크린’을 적용했으며, 새로운 AI 쿼터 프로세서와 ‘무빙 사운드 플러스’, ‘액티브 보이스 등으로 사운



삼성전자 2020년형 QLED 8K TV. /삼성전자

드 품격도 높였다.

삼성전자는 14년 연속 글로벌 1위 달성을 기념해 300대 한정모더 더세리프

55형 모델 무상 증정과 5년 무상 보증, 프리미엄 설치 서비스 등을 담은 ‘Q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전자 멤버십포인트 등 유통별 50만~100만원 혜택과 함께, 사운드바 등 음향기기 제품을 50% 할인해주는 ‘사운드 쿠폰팩’도 선물한다.

가격은 출고가 기준 85형과 75형 각각 1940만원, 1390만원이다. 전국 삼성 디지털플라자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재용 기자 juk@

KT스카이라이프, 차에도 미디어서비스 확대

‘스카이오토’로 전면 개편 일반 승용차까지 범위 확대

KT스카이라이프는 2일 차량용 미디어 서비스 ‘스카이라이프 LTE TV (SLT)’를 ‘스카이오토(skyAuto)’로 전면개편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이번 전면 개편을

통해 기존 버스 등 대형 승합차량 중심 서비스에서 일반 승용차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또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개선된 상품과 총판 및 AS지정 대리점을 포함해 전국 200여개의 대리점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우선 유통 체제가 전면 개편된다. 승

용과 버스·특수 부분 두 개 카테고리 나누고 차종 특성에 맞는 서비스 체제로 정비했다.

또 처음 설치한 대리점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AS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 단위 40여개 AS지정 대리점을 운영한다.

요금제도 올 상반기 내 도입된다. 매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연간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제주항공, 545억원에 ‘이스타항공’ 인수

국내 항공업 최초 동종사업자간 결합

업황 부진 등으로 많은 우려를 나눴던 국내 항공업계 최초 동종사업자 간 M&A가 결국 성사됐다.

2일 제주항공은 공시를 통해 이스타항공을 최종 인수하기로 양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대주주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주식 497만 1000주(51.17%)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인수금액은 545억 14만 7920원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이스타홀딩스에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115억원을 제외

하고, 차액 약 430억원은 취득 예정일자인 오는 4월 29일에 전액 납입 예정이다.

이번 양사 간 인수합병은 국내 항공업계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동종사업자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항공은 이번 인수를 통해 양사의 운영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원가절감 ▲노선 활용의 유연성 확보 ▲점유율을 바탕으로 하는 가격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시너지를 발휘해 양사는 물론, 승객들에게도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김수지 기자